‘답보 상태’ 완주 · 전주 통합 해법 모색

정부 · 정치권 · 지자체, 국회서 행정통합 6자 간담회 개최… “행안부장관이 최종 결론 내야” 공감대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25일 국회 본관 식당에서 열린 ‘전주·완주 통합 6자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 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완주 전주 통합 추진 계획과 향후 절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주민투표를 건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4월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개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9월 이전 주민투표를 추진하려 했지만, 완주군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할 경우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해왔다.

간담회 이후 일부 참석자들은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도민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주민투표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 역시 “통합의 종착지는 결국 주민의 선택”이라며 “공정하고 성숙한 과정 속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자치권을 지키면서 교통·산업·환경 등 공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회동과 관련 “참석자 모두 조속히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결정은 행안부 장관에게 맡기자는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주민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와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동으로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라는 분석 속에, 이제는 윤호중 장관의 최종 결심만이 남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통합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간 합의가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토대로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문화 · 관광 ·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모색

‘제4차 출연기관 소통의 날’ 맞아… 전북대 글로컬대학 30 과제 추진 상황 공유 ·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연기관 간 정기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5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문화·관광·콘텐츠 소통의 날’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수행 중인 전북대 글로컬대학 30 지역상생사업 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북대와 원광대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북대 글로컬 30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조성사업(22억 원, 2025~2026년)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사업(18억 원, 2025~2026년) 등 2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는 AI와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사업은 XR 스튜디오 교육실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매년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새롭게 조성된 커뮤니티 라운지와 XR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활용 방안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커뮤니티 라운지는 도내 콘텐츠 기업과 개발자, 투자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로, XR 스튜디오는 이론과 실습, 결과물 제작까지 연계되는 실무형 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경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출연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새롭게 조성된 커뮤니티 라운지와 XR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활용 방안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커뮤니티 라운지는 도내 콘텐츠 기업과 개발자, 투자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로, XR 스튜디오는 이론과 실습, 결과물 제작까지 연계되는 실무형 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만호 기자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추진단 회의 전북서 개최

국조실-행안부-특별자치시도부처 · 국회 공동 대응 협력

맞춤형 특례 발굴 · 입법 · 자치분권 강화 전략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주 한옥마을 동헌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7차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와 ‘제2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정일황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특별자치담당, 전북도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는 ‘5극 3특’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2023년부터 국조실과 4개 특별자치시도가 순차적으로 개최해온 협의체다. 이번 전북 회의에는 특별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여해 제도 발전과 입법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전체 특별자치시도 지원방안과 제도 발전 방향을, 행정안전부는 입법 동향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공고화 등 특별자치시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 ·문화관광·미래첨단산업 등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과제와 맞춤형 특례 발굴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혁신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성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산림·관광 분야 특화 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후 진행된 소통 워크숍에서는 참석자 40여 명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교류하며, 논의된 현안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5대 핵심산업 육성, 인구감소 대응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에 발굴된 50건의 입법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상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추석 연휴기간 임도 개방

성묘객 편의 위해 한시적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북에는 산림 경영·관리를 위해 총 1,741㎞의 임도가 조성돼 있다. 도는 임산물 도난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오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 시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지하고, 낙석이나 차량 전복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온라인 채용설명회 열린다

내달 28일, 우수 자산운용 전문가 대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우수한 자산운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8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용 안내 행사다.

설명회는 영상회의 시스템 ‘웹엑스(Webex)’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원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를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소개, 기금운용직 채용 절차, 본부 및 해외사무소 근무 환경과 정주여건 등이 안내된다. 이어 전략, 증권투자,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5개 그룹 중 한 분야를 선택하면 재직자로부터 직무와 수행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원자들이 입사 전 직무와 근무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우수 운용인력 확보와 장기적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기자

모집 스피치 · 선거연설 긴장해소 · 면접 환영

현대는 소통과 능력 위주 시대, 감성 표현의 시대입니다.
스피치는 현대인의 필수과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설, 토론 기법, 유세 원고, 설득의 기법 등으로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50년의 스피치 지도 전문가가
개인 지도 및 그룹 지도를 합니다.

▷ 김양옥 지도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역임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전북인재개발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스피치, 시낭송지도사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김양옥 교수)

• 전주 · 완주지역: 개인 지도 및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평생교육원
• 익산 · 김제지역: 원광대 평생교육원
• 정읍 · 고창지역: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 군산 · 부안지역: 군산대 평생교육원

문의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 스피치 웅변협회 전북본부, 한국 스피치 면접 컨설팅